

2021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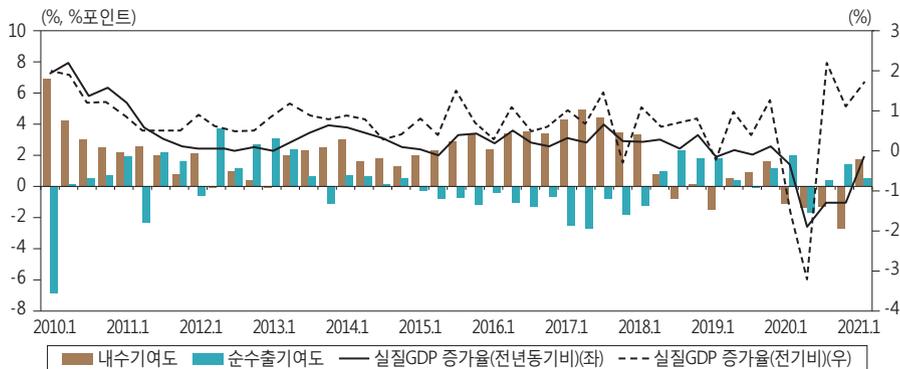
올 들어 국내 실물경기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소비의 회복세가 미진한 모습이나, 대내외적으로 코로나 사태 진정 및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가파른 반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백신 보급의 확산과 이동제한 조치의 완화, 각종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20년의 낙폭을 만회하는 성장률이 예상된다. 유가는 원유 공급 감산의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의 가파른 증가로 상승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의 완만한 상승, 주요국 백신 보급 확대 등이 달러화 약세를 이끄는 가운데, 국내 수출 증가와 국내 백신 보급 계획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소비의 회복세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외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빠른 회복, 2020년 역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4.0%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백신 보급 속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인 가운데 특히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의 회복 속도와 고용시장 안정화 여부, 소득 여건의 개선 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는 전년도 감소의 기저효과에 더해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보복소비,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인하여 3%대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등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9%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연간 1.1%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은 주요국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소비 증가와 제조업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해 연간 19.2%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국내 실물경기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소비의 회복세가 미진한 모습이나, 대내외적으로 코로나 사태 진정 및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가파른 반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가 올 1분기에 증가(1.2%)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고, 투자는 설비투자가 비교적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통관기준)은 대외여건의 개선과 국제유가 및 수출단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회복세가 올해 들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산업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작년 11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며,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서비스업의 부진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표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모두 코로나19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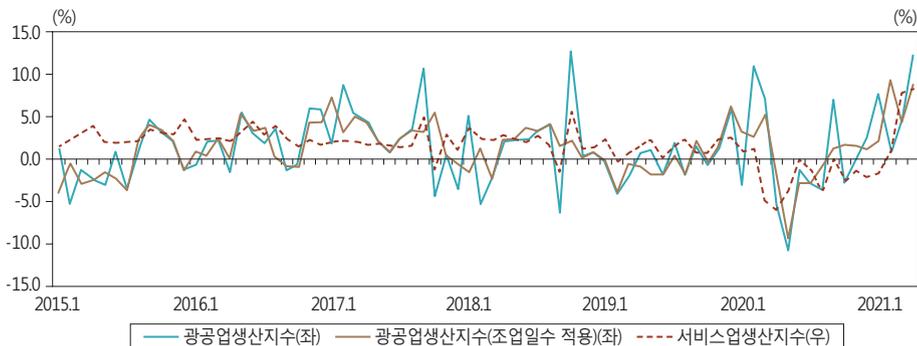
〈그림 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그림 2〉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 3〉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태 발생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작년 5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 및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대외여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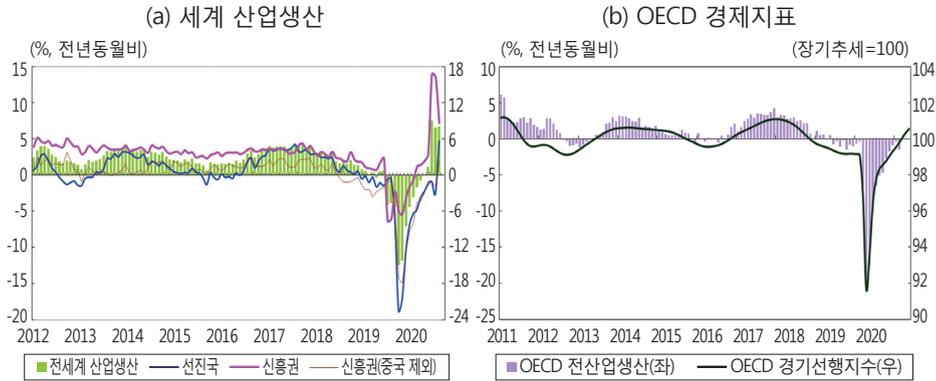
(1) 세계경제

세계 실물경기는 작년 2분기 이후 선진권과 신흥권의 동반 회복세가 이어지고, 올해 들어서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선진권은 미국이 올해 초 소비와 투자 등이 급증하면서 4분기 만에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하고, 일본과 유로존 역시 작년 2분기에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하였다. 개도권은 신흥권은 중국이 작년 1분기(전년동기비 -6.8%)를 제외하고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8.3%까지 높아지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과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낙폭이 축소되었다.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백신 보급의 확산과 이동제한 조치의 완화, 각종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20년의 낙폭을 만회하는 성장률이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연준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고용 여건의 회복과 인플레이 심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과 유로권은 이동제한 조치 등의 여파로 상

〈그림 4〉 세계경제지표 추이



자료 :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표 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연간 전체(f)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IMF	OECD	세계은행	ADB
세계	2.8			-3.3		6.0	5.8	5.6	-
선진권(*)	1.6	-6.3	-3.4	-4.8	-0.8	5.1	5.3	5.4	-
미국	2.2	-4.4	-2.6	-3.5	0.4(6.4)	6.4	6.9	6.8	6.5
유로존	1.3	-9.0	-4.4	-6.7	-1.3	4.4	4.3	4.2	4.3
일본	0.0	-6.1	-3.4	-4.7	-1.6	3.3	2.6	2.9	2.9
신흥권	3.6			-2.2		6.7	-	6.0	-
중국	6.0	-1.8	5.7	2.3	18.3	8.4	8.5	8.5	8.1
세계교역	0.9			-8.5		8.4	-	8.3	-

자료 : IMF WEO(2021.4월); OECD(2021.6월); 세계은행(2021.6월); ADB(2021.4월).

주 : 선진권의 반기별 수치는 OECD 국가들의 성장률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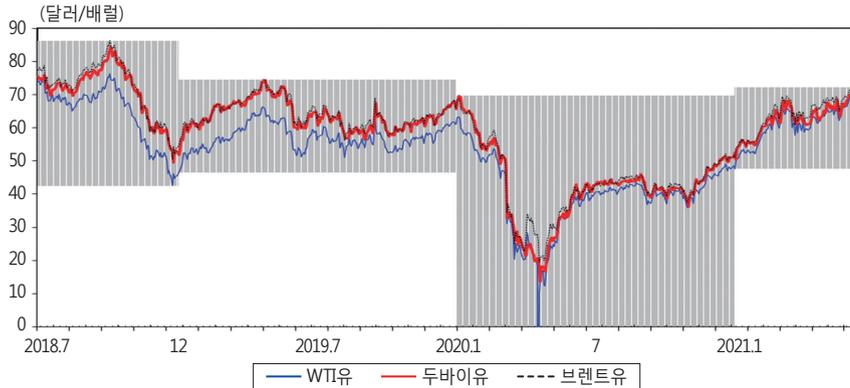
대적으로 더딘 회복세가 진행 중에 있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의 일부를 만회할 전망이다이며, 중국은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8%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지속 양상과 국가간·부문간 불균형 문제의 해소 여부, 글로벌 인플레이 압력의 심화 정도, 부채 누적으로 인한 정책 여력의 한계 등이 있다.

(2) 유가 및 환율

2021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불안정성, OPEC+의 감산과 예상보다 빠른

〈그림 5〉 국제유가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1)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소값~최대값)임, 2) 2020.4.20. WTI유 가격은 -37.6달러를 기록.

수요 회복으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상반기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등 지정학적 요소와 미·중 무역 갈등, 각국의 경기부양책 및 백신 보급으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OPEC+ 국가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계획보다 높은 감산 이행률이 상반기 유가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특히 3월초 OPEC+ 회의(3.4일)에서 감산 유지가 결정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였다. 또한 올 3월에 발표된 OECD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과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통과(3.10일)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미 달러화 약세 상황과 맞물리며 유가가 69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유럽과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 OPEC+ 감산 규모 완화로 인해 유가가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6월 OPEC+ 회의에서 기존의 감산 완화 유지를 결정하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21년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의 가파른 증가로 상승세가 예상된다. 하반기 백신 공급과 이동 제한 완화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및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국제 원유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OPEC+ 국가의 감산 축소는 국제유가에 하방 압력 요소이지만, 점진적인 감산 완화와 미국의 부진한 원유생산으로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속도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유 주요 수요국인 인도의 코로나19 대응력 약화와 연준의 금리인상 압박 및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은 추가적인 유가 하방 압력 요소로 작용하여 원유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 역시 병존한다.

두바이유 기준 2021년 유가는 상반기 61.6달러(전년동기비 51.7% 상승), 하반기

66.5달러(전년동기비 51.9% 상승)를 기록하면서 연간 64.0달러(전년동기비 51.8% 상승)로 예상된다.

2021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더딘 국내 백신 보급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국내 유입자본의 해외 이동 등에 따라 지난 2020년 말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연초 미국의 신속한 백신 보급, 대규모 경기부양책 통과로 인한 미국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 국채수익률 상승 등이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백신 보급률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경제정상화 지연 및 코로나19 대응력 약화 등의 우려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연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미국의 국채금리가 3월 초 1.5%까지 급등하였고, 인플레이션 공포를 동반한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 최고점인 1,432.7원(3.10일)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부양책 통과(3.11일), 미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발표(3.18일),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완화 등으로 국내 해외 자본 유출이 감소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2021년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 강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백신 보급과 경제회복 속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달러화 강세를 지지할 것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미 국채금리의 완만한 상승세, 주요국의 백신 보급 확대로 달러화 강세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백신 보급 확대로 주요국의 경제정상화에 따른 국내 수출 증가와 하반기 안정적인 국내 백신 보급 계획 등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유럽 등 주요국의

〈그림 6〉 원/달러, 원/엔(100엔),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기부양책 실시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주요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감은 원/달러 하방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 19 재확산 및 백신 보급 등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1,118.6원(전년동기비 7.6% 하락), 하반기 1,110원(전년동기비 3.7% 하락)을 기록하면서 연간 1,114.3원(전년동기비 5.6% 하락) 수준이 예상된다.

3. 2021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지속이 소비 회복세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외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빠른 회복, 2020년 역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4.0%의 성장이 예상된다. 수출이 대외경기 개선과 기저효과 등으로 2018년 이후 처음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는 특히 설비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 역시 증가세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수출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로 대외수요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세와 유가 상승 및 수출단가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수출은 전년대비 약 19.2%, 수입은 약 21.7% 증가하고,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대비 소폭 줄어든 약 417억 달러 수준이 예상된다.

내수는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투자는 설비투자의 견조한 증가세와 건설투자의 증가세 전환이 기대된다. 소비는 백신 접종 개시로 인하여 소비심리 개선과 소비활동 제약이 일부 완화되고, 전년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코로나19로 지연된 소비 등으로 인해 3%대 증가율이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제의 회복 추세와 반도체 경기호조에 따른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에 이어 견조한 증가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된다.

2021년에도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백신 보급 속도, 코로나19 확

〈표 2〉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19	2020		2021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2	-0.6	-1.0	-0.9	3.8	4.1	4.0
민간소비	2.1	-4.5	-5.6	-5.0	2.5	3.9	3.2
설비투자	-6.6	5.9	8.2	7.1	11.1	6.9	9.0
건설투자	-1.7	1.6	-2.3	-0.4	-0.5	2.5	1.1
통관 수출 (억 달러, %)	5,422 (-10.4)	2,405 (-11.3)	2,720 (0.3)	5,125 (-5.5)	3,032 (26.1)	3,078 (13.2)	6,110 (19.2)
통관 수입 (억 달러, %)	5,033 (-6.0)	2,299 (-9.0)	2,377 (-5.2)	4,676 (-7.1)	2,851 (24.0)	2,842 (19.5)	5,693 (21.7)
무역수지	389	106	342	449	181	236	417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산세 지속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인 가운데 특히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의 회복 속도와 고용시장 안정화 여부, 소득 여건의 개선 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작년 4분기까지 역성장한 이후, 올해 들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보복소비’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실질총소득(GNI)은 교역조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3.8% 증가(전기비 2.4% 증가)하였다. 1분기 소매판매는 자동차 등의 내구재와 화장품 등의 비

〈표 3〉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4월
민간소비	2.1	-4.8 (-6.6)	-4.2 (1.2)	-4.5 (0.2)	-6.6 (-1.3)	-5.0	1.2 (1.2)	-
소매판매액 지수	2.4	-2.9 (-5.7)	2.0 (5.9)	1.6 (-1.1)	-1.2 (0.9)	-0.2	6.3 (1.7)	8.6 (2.3)
실질 GNI	0.4	0.2 (-0.6)	-1.7 (-2.0)	-0.3 (2.3)	0.8 (1.1)	-0.2	3.8 (2.4)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비 6.3% 증가, 4월 소비 역시 면세점과 백화점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8.6% 증가(전기비 2.3%)하였다.

또한, 취업자수는 올 3월부터 전년동기비 증가세로 전환되고, 고용률도 반등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되던 고용 위축이 완화되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이 유지되는 점은 소비 진작에 긍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가계부채 역시 누적되고 있어 향후 인플레이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민간소비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1년 민간소비는 전년도 감소의 기저효과에 더해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보복소비,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인하여 3%대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다만,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재정 확대에 의한 정부 부채 부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의 여건들은 소비 진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 추이를 보이면서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것은 전년 부진의 기저효과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등 ICT산업의 투자수요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등의 호조에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가세하면서 증가율이 더 높아져,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비 12.4%(잠정치 기

〈표 4〉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

		2019	2020				2021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전년동기비	설비투자	-6.6	7.4 (0.1)	4.5 (0.7)	10.7 (5.8)	6.1 (-0.6)	7.1	12.4 (6.1)
	기계류	-10.2	4.5 (-0.8)	7.3 (2.8)	11.1 (3.1)	9.1 (3.6)	8.0	17.4 (7.5)
	운송장비	4.7	17.3 (2.7)	-2.4 (-4.5)	9.4 (13.5)	-1.1 (-11.5)	4.7	-2.4 (2.0)

자료 : 한국은행.

주 : 1) 2021년 1분기는 잠정치, 2)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준) 증가하였다. 2021년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등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9%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반기에 모두 호조세가 이어지나, 전년의 기저효과 등으로 하반기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작년에 이어 반도체를 위시한 ICT 제조업이 투자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ICT 부문 설비투자도 국내외 경기회복과 친환경 신성장 부문 투자 확대로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4)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2018년 이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 1분기에도 여전히 부진한 양상이다. 형태별로는 작년에 토목에서 비교적 호조를 보인 반면, 건축에서 다소 부진하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역전되면서 건축 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반면, 토목에서는 다소 부진하다.

최근 건설투자 선행지표는 향후 건설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표 5〉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

		2020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전년 동기비	건설투자	4.4	-0.4	-1.5	-2.9	-1.8	
	형태별	건물건설	-0.0	-4.3	-2.7	-2.7	-0.4
		주거용 건물	-3.1	-6.7	0.1	-0.4	-0.6
		비주거용 건물	3.7	-1.8	-5.2	-4.9	-0.2
		토목건설	16.7	8.2	1.9	-3.4	-5.3
	주체별	민간	-1.0	-2.9	-0.6	0.1	0.9
		정부	33.0	5.8	-6.6	-11.4	-12.9
전기비	건설투자	0.1	-2.9	-3.9	3.5	1.3	
	형태별	건물건설	-0.6	-4.6	-1.5	3.9	1.9
		주거용 건물	-1.3	-4.0	2.2	2.9	-1.5
		비주거용 건물	0.1	-5.1	-5.1	4.9	5.4
		토목건설	1.5	0.9	-9.0	2.7	0.0
	주체별	민간	-1.2	-0.7	0.0	1.9	0.4
		정부	4.1	-9.4	-16.7	9.8	4.8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잠정치.

2021년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연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기 회복세와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등으로 건축과 토목 모두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건물 건설이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5) 수출입

작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소비 증가 및 제조업 업황 개선으로 주요 품목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대폭 증가하였고, 수입도 자본재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수출은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의 뚜렷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수입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원유와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해 두 자릿수 증가하였다.

수출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출물량은 주요국의 경기 회복으로 작년 4분기부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출단가도 올해 들어 주요 품목의 단가 상승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주요국 경기 회복세에 따른 소비 확대로 대다수 품목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단가 상승으로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반도체는 글로벌 IT기업의 서버용 메모리 및 모바일 기기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 부족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디스플레이와 가전 등 IT제품은 소비심리 회복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수출이 확대되었다. 석유제품·석유화학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철강도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전방산업 경기 개선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과 수출단가가 높은 SUV·친환경차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선박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른 친환경 연료 추진선과 대형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증가하였다. 일반기계는 건설과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면서 수출이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섬유도 방역 관련 품목의 수요가 지속되는 데다,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의류 수요 확대로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다.

〈표 6〉 산업별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수출증가율			수출비중		
	2019	2020	2021 (1~6월)	2019	2020	2021 (1~6월)
반도체	-25.9	5.6	21.9	17.3	19.4	18.8
석유화학	-14.8	-16.4	51.1	7.9	6.9	8.6
일반기계	-1.9	-8.8	9.1	9.7	9.3	8.6
자동차	5.3	-13.1	49.9	7.9	7.3	7.8
철강	-8.6	-14.4	27.1	5.7	5.2	5.4
석유제품	-12.2	-40.6	26.0	7.5	4.7	5.3
선박	-5.3	-2.0	21.5	3.7	3.9	3.9
자동차부품	-2.5	-17.3	43.6	4.2	3.6	3.8
디스플레이	-17.0	-12.3	25.5	3.8	3.5	3.0
무선통신기기	-17.6	-6.4	29.4	2.6	2.6	2.5
컴퓨터	-20.6	57.2	6.0	1.6	2.6	2.3
섬유류	-8.0	-13.3	14.7	2.4	2.2	2.0
가전	-3.6	0.7	38.1	1.3	1.4	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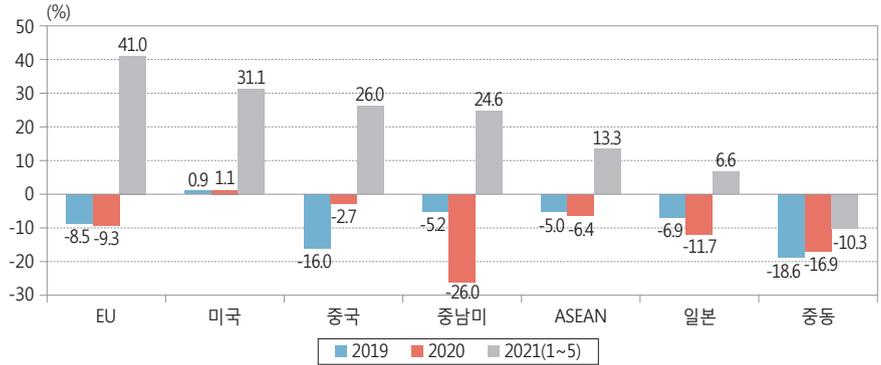
주 : 2021년 6월은 잠정치.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EU·미국·중국에 대한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고, ASEAN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소폭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은 감소하였다. 대중 수출은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와 주요 품목의 수출 단가 상승으로, 대미 수출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두 자릿수 증가하였다.

수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대폭 확대 되고, 중간재와 소비재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가와 철광석 등 1차산품 수입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 수출은 주요국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소비 증가와 제조업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해 연간 19.2%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등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 되고,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와 반도체 공급 부족 및 유가 상승으로 수출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친환경 자동차와 반도체 등 IT 품목의 수출 증가세 유지, 선박 인도 증가, 유가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단가 상승, 바이오/헬스 관련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

〈그림 7〉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만, 작년 말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기저효과와 유럽·신흥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거시정책 기조 변화, 지정학적 분쟁 등의 불확실성 요인은 수출 증가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비교적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 수입단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경기회복 및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물량도 증가하여 연간 21.7%의 증가가 전망된다. 2021년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417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정민

동향분석실·연구원

jmh@kiet.re.kr / 044-287-3291

〈주요 저서〉

- 최근 우리나라 수출 호조의 배경과 시사점(2021)
-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유형분석과 대응전략(2020, 공저)